

친환경 전기차 사업화 '속도'

군산 강소특구, 관내 기업 30개사 신청... 선정평가 준비 박차

군산 강소특구가 특화분야인 친환경 전기차 기술개발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군산강소특구육성사업단은 지난 8월 특구재단 주관의 기술이전사업화(R&BD)에 연구소기업형 7개사, 기술이전형 23개사 등 군산 관내 기업 30개사의 신청을 완료하고 9월 선정평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술이전사업화는 군산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신제품·신사업 진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R&BD(제품화, 양산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강소특구 기술이전사업화(R&BD) 선정규모는 14개사로 이중 특화분야

인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관련 기업 7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기업별 지원금액은 연 2억원이다.

사업 주관기관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기업별 출자기술 중복성 등 서류평가와 사업화추진전략 발표평가 등을 거쳐 9월말 최종 지원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기술 출자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시제품 개발, 국내외 표준·인증, 양산기술개발, 마케팅 등을 포함한 기술사업화 전주기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 군산 강소특구 육성사업은 국비 80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72억원으로 ▲강소형 기술창업 ▲지역특

화성장지원 ▲사업화 우수기술개발 및 수요기업 연계 ▲기술이전사업화(R&BD)의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8개의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기점으로 상행령 통한 기술사업화 연구회(TIM)와 정책협의회 등 혁신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연이어 실시하였다.

또한 8월까지 Tech-up, Jump-up 등 지역특화 성장지원사업 기업 선발과 협약 체결을 마무리 했다.

아울러 하반기 설립을 목표로 우수 기술이전과 출자를 통해 7개의 연구소기업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한경봉 기자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모임 최대 8인 '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다음달 3일까지 연장

오는 10월 3일까지 추석연휴를 포함해 4주동안 거리두기 3단계 및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지난 3일 백종현 군산시보건소장은 비대면 브리핑을 통해 모든 다중이용시설 및 가정에서 사적모임 4인에서 접점완료자 포함 8인까지 가능하다고 밝혔다. 단 1차 접점자, 미접점자는 사적모임 4인까지만 가능하다.

또 식사제공이 없는 결혼식의 경우 개별 결혼식 당 49인 인원제한에서 99인까지 허용한다.

300㎡ 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 소매업에서는 안심홀 등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며 지자체 자율로 의무화가 가능해졌다.

백 소장은 "8월들어 외국인 근로자 진단검사를 행정명령을 발령해 지역 사회 전파를 사전에 차단했다"며 "하지만 9월 현재까지도 외국인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회활동이 왕성한 2~30대 젊은 층의 확진자들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되는 만큼 개인위생 수칙 준수와 소규모 모임을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의 정취가 가득 담긴 탐마루 농특산물"

시,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 탐마루쇼핑몰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전'

익산시는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탐마루쇼핑몰(topmaru.net)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 판매전은 6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다. 판매전에서는 품목당 5%에서 최대 20% 할인행사와 함께 무료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지역 농특산물인 고구마, 배, 매론, 쌀(친환경) 등 탐마루 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시는 판매촉진을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도료올림픽 펜싱 동메달리스트 권영준 선수가 추천하는 탐마루 농특산물 네이버에서 온라인 홍보를 진행한다. 권영준 선수는 현재 익산시청 소속으로 시 홍보대사에 위촉됐다.



익산시는 지역 농산물 판매촉진을 위해 탐마루쇼핑몰(topmaru.net)에서 '온라인 특별 판매전'을 진행한다.

시는 지난 8월부터 익산역 역내 광고를 시작했으며 주 판매지역인 수도권에서 역내(수서역)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탐마루 농산물은 철저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공동선별·상품화 과정을 거쳐 대형유통업체, 도매시장 등 전국각지에 공급 중이다. /뉴시스

군산시, 추석 명절 대비 전통시장 특별 방역점검 실시

군산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6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전통시장 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점검은 꺾이지 않는 코로나9 확산세와 더불어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군산시 상인연합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합동점검으로 진행된다.

중점 점검사항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방문객의 올바른 마스크 착용, 일 2회 이상 방역 소독,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시장 내 마스크 착용 홍보인력 배치, 주출입구 손소독제 비치, 소독액 등 방역물품을 지원하고 방역관리자에게 거리두기 지침을 교육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군산=한경봉 기자

이종혁 소상공인지원과장은 "군산시는 코로나9로부터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을 만들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전통시장 이용 시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와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군산 옥도면 '선유도에 물들다' 착한가게 현판 전달

군산시 옥도면은 최근 선유도에 위치한 '선유도에 물들다'에 착한가게 현판 전달식을 가졌다. 올해 두 번째로 옥도면 착한가게에 신청한 선유도에 물들다는 선유도 망주봉 자락에 지난 1974년에 지어진 근대식 한옥을 리모델링한 고군산도의 유일한 한옥펜션으로 이번 착한가게 가입을 시작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한 봉사활동을 실천할 예정이다.



임동준 선유도에물들다 대표는 "코로나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고민하던 중 착한가게라는 캠페인을 알게 됐다"며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성원 옥도면장은 "코로나9로 인한 어려운 경기침체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위해 솔선수범하며 나눔을 실천해 주심에 깊이 감사하다"며 "매달 전해주시는 기부금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가게는 지역사회 내 월 3만원 이상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로 매장을 경영하는 지영업자 또는 중소기업, 병원, 약국 등 어떠한 업종의 가게도 참여할 수 있다. 기부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기탁되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한 지원금 및 특화사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남현봉기자

지역 소식통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 자원봉사자 모집

군산시는 오는 16일까지 2021 군산시간여행축제에 참여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오는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 개최하는 군산 시간여행축제는 근대를 축으로 군산의 고대, 중세, 근현대, 미래를 콘셉트로 하는 체험·전시·공연을 즐길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성인 등 누구나 이번 자원봉사에 신청할 수 있다.

자원봉사 참여자들은 근무수칙 교육을 받은 후 구시청광장 등 월명동 시간여행마을 일원에서 축제 프로그램 및 부스 운영 지원,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방역수칙 안내 및 지도 등 방역활동을 수행한다. 참여자들은 활동별로 4~6시간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골목상권 공동 마케팅 지원사업 모집

군산시는 (재)군산시상권활성화재단이 관내 상인회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은 골목상권의 홍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오프라인 분야에서 홍보 콘텐츠 제작, 미디어 홍보, 공동구본 발행 등의 지원을, 온라인 분야에서는 배달의 명수업 프로모션 지원 등을 한다.

지원 대상은 고유번호증을 보유하고 있는 관내 상인회로 관련 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하며 상인회원의 사업 동의를 60% 이상 받아야 한다.

접수기간은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5일간 방문접수를 통해서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상권활성화재단(063-443-8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종혁 군산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코로나9로 골목상권이 많은 타격을 입은 만큼, 노후된 골목상권에 마케팅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의 한 축인 골목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데 목적을 뒀다고 밝혔다. /군산=고병만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